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권력, 주체성, 수행성*

박규택** · 하용삼*** · 배윤기****

A Framework of Interpretating (de)Centralized Landscape : an Interaction of Power, Subjectivity, and Performativity

Park, Kyu-taeg** · Ha, Yong-sam*** · Bae, Yoon-gi****

요약: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로컬 경관의 변화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틀의 토대가 될 주요 개념은 권력(power), 주체성(subjectivity), 수행성(performativity)이며, 향후 이 개념들을 보다 치밀하게 결합된 해석의 틀로 발전시킨 뒤 다양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한 (탈)중심화 경관의 구체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응용될 것이다. 국민국가 하에서 국가권력은 통치, 국민적 정체성, 중앙집중적 경제발전 등을 실행하기 위해 상이한 로컬의 문화·역사와 다양한 주체들의 가치를 파괴하거나 주변화 시킨다. 이는 경관을 매개로 작동하며, 경관에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경관은 로컬에서 갈등의 동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경관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역으로 생성된 경관은 사람들의 정서, 인식, 행동에 능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관과 주체성의 역동적 관계를 근대 이념, 국민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이성/합리성, 전체성/집단성, 이성과 감성의 분리 등에 의해 위장하거나 배제 혹은 주변화시켰다. 그리고 경관과 주체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체들의 저항성과 창의성에 무게를 둔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선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개념 혹은 주체의 감성과 인지와 분리될 수 있는 물체(혹은 객체)가 아니라 상이한 주체들과의 수행적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수행성은 경관의 물질성, 권력, 주체성을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경관 자체의 능동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어: 경관, (탈)중심화, 주체, 권력, 물질성, 주체성, 수행성, 국민국가

Abstract: This study is to make a framework of newly interpreting the dynamic change of regional or local landscape rapidly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state and capitalistic system. The basic concepts of making an interpretative framework are power, subjectivity, and performativity. The framework of closely interrelating the three concepts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will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variety of (de)centralized landscapes in regions or locals.

A centralized political power under the nation state has destroyed or marginalized the historically developed landscapes, traditional culture, and subjects' values in regions or locals by the politica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 stat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dentity, a centralized economic development, and so on. The landscapes produced by the political power of the nation state can take a role as a cause of conflicts in regions or locals in terms of a historical perspective.

Landscape are being made by various subjects, and the produced landscapes also positively or negatively will influence the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subjects particularly in a performative perspective. The dynamics interrelation between subjects and landscapes has been disguised or marginalized by reason/rationality, totality/collectivity, the separa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mainly made by modernism, the nation state, a capitalistic system. The interrelation between landscapes and subjects is especially emphasized on people's resistibility and creativity.

Lastly, landscape is not a concept given a priori or (re)presented objectively. It is not also a material or an object independently existed from a subject's emotion and cogni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a performative relation with subjects. Performativity will take an active role of combining the materiality of landscape, power, and subjectivit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ctive role of landscapes.

Key Words: landscape, (de)centralization, subject, power, materiality, subjectivity, performativity, the nation state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HK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pkt11@pusan.ac.kr)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HK Research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augenblick@pusan.ac.kr)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HK Research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bygwind@pusan.ac.kr)

1. 서론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의 힘과 사람의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져온 경관은 고정되지 않고 언제나 변화해왔다. 전통사회에서의 경관은 오늘날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서서히 변화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생산력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식론적으로 자연을 객관화하고 인간(삶)과 별개로 있는 대상으로 사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사유함에 있어 대체로 무매개적(immediate)이고 전체론적인(holistic)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반해 근대적 인식론은 매개적(mediate) 사유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인간과 무매개적으로 있는 객체로서 자연을 분리하여 사유함으로써,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계몽적 기획을 통해 근대적 주체로서 인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유와 실천의 자유를 쟁취하는 진보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역사적 시간의 완성을 지향하는 근대국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속에서 자연과 인간(삶)을 교환가치의 체계에 환원시키게 된다. 일종의 추상적 주체로서 ‘근대적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거대규모의 변화는 이런 인식론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체제가 수립된 이후 각국의 경관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그리고 경쟁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로컬¹⁾의 자연과 사회·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된 다양하고 상이한 전통 경관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거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무관하게 ‘관광 자원’으로 선택되어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효율성과 편리성 등의 기준으로 ‘이윤동기’를 유발하는 상품으로 환원시키는 동질화(혹은 중심화)의 표준이 되고 있는 근대 경관은 로컬에 기반을 둔 다양화·이질화(혹은 탈중심화)된 전통 경관들을 대체하고, 이는 다시 사람들의 의식과 삶 그리고 로컬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 년 전 상주 지역 현장답사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기 위해 김천역에서 잠시 열차를 기다릴 때, 답사를 도와준 일본인 대학원생²⁾이 던진 질문

은 본 연구의 배경을 적절하게 함축하고 있다. 그 질문은 아주 간단했지만,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 동기와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왜 한국의 철도역 건물들은 모두가 똑같은가?”라고 하는 물음이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의문시하지 않는, 이 질문은 철도역 경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만들기도 하는 근대 경관 일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들을 추려본다면, 대략 아래의 몇 가지 생각들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다. 첫째, 근대성, 식민성, 자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수립된 근대국가의 팽창적 권력과 로컬 경관의 상호관계성이다. 둘째, 철도역 경관을 생산한 주체들, 특히 고위직 관료와 건축 엘리트 등의 인식과 실천에 관련된 것이다. 셋째, 경관은 자연, 물질, 공간을 토대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경관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감성, 인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넷째, 철도역 경관은 철도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내부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위의 생각들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기초로 하여 경관에 대해 최근의 논의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을 통해 (탈)중심화 경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고자 한다.³⁾ 다시 말해, 이 논의는 권력(power), 주체성(subjectivity),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개념을 토대로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 틀(interpretative framework)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심화 경관은 국가, 자본, 근대 과학에 의해 동질화 혹은 표준화되는 경관을 지칭한다.⁴⁾ 한편, 탈중심화 경관은 로컬의 자연·사회·문화·역사를 배경으로 생성되는 경관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탈)중심화 경관 해석을 위한 핵심 개념, 즉 권력, 주체성, 수행성은 논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도적으로 분리시킨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경관의 이해⁵⁾

경관의 이해는 두 가지 질문, “경관이란 무엇인

가?”와 “경관이 어떻게/왜 개념화 혹은 재현(representation)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경관의 존재와 관련되고, 후자는 경관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다. 최근에는 ‘경관의 존재’와 ‘경관의 인식’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시에 이해하려는 이론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⁶⁾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탈)중심화 경관은 이러한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최근 논의의 조건 속에서 경관의 문제를 고찰한다.

‘경관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경관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인공적인 것(건축물, 조각물, 그림, 영상물 등)까지도 포함하는가?”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후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 건축물, 조각물, 그림 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상상, 문화, 제도 등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인공적인 축성물들은 생산 주체의 어떤 목적과 관련되는 인식 혹은 개념화 단계를 매개하여 나타난 실체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물질 혹은 이미지를 ‘경관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경관 존재’의 본성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될 수 없다. 현재 ‘경관 존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물질성(materiality)’이다.

물질성은 경관을 구성하는 물질의 속성과 상이한 주체들이 덧붙인 의미, 상징, 이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관의 물질성은 주체의 수행(performance)에 의해서 작동하며, 수용과 갈등(혹은 투쟁)의 현장(field)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물질성에 대한 착안은 이미 수립된 경관이 고정불변이라는 인식을 넘어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향한 문을 연다. 즉, 누가, 왜, 어떻게 경관의 물질성을 만들었으며, 만들어진 물질성은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는 상이한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경관 인식론’의 핵심은 “경관 존재를 누가, 왜, 어떻게 인식하고 재현/개념화할 것인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체의 경관 인식은 매개체(언어, 기호,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경관의 재현/개념화가 경관 자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경관 재현/개념화의 표준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혹은, 과연 경관의 재현/개념화가 객관적 혹은 가치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한 최근 논의의 잠정적 결론은, 경관에 대한 근대적 인식론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경관 자체로부터 느낌 혹은 감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⁷⁾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몸과 이성을 분리시켜 특권화하는 이원론적 사고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배제한 채 이성적/합리적으로 사유하는 근대적 인간을 선형적으로 규정하고 추상적으로 범주화시킨데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각적 재현으로서의 경관에 대한 이해는 경관 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재현되는 대상/객체 자체를 등한시하는 협소한 틀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코스그로브와 데니엘스(Cosgrove and Daniels, 1988)에 의하면, 경관은 문화적 이미지, 즉 주위 환경을 재현하거나 상징화시키는 일종의 시각적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마음속의 그림을 강조하였다. 극단적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 기초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외부세계와의 일체의 연관성(connectivity)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경관은 컴퓨터 버턴의 단순한 터치에 의해 경관의 의미가 창조되고, 확장되고, 변경되고, 정교화 되고,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불안정한 텍스트로 취급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주장은 외부세계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경향성을 낳았다.

중심화 경관과 탈중심화 경관은 ‘주어진 것이 아닌 형성된 경관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동질성과 이질성, 표준성과 분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같은 문맥에서 인식론 측면으로는, 이성적/합리적 사유 혹은 감정과 이성이 결합된 사유, 탈맥락화 사유 혹은 맥락화 사유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탈)맥락화 사유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활성화된 몸에 의해서 경험된 사유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탈중심화 경관은 로컬 주민의 토착적 삶과 문화·역사·생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권력, 주체성, 수행성

최근 경관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점은 경관의 존재와 인식을 선형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상적으로 범주화 혹은 개념화시키는 경향을 거부한다. 또한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근대적 이원론적인 사고와 이에 따른 이성과 감성의 분리 혹은 특권/서열화 작업을 거부한다. 이에 대한 대안적 관점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지닌 주체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서 경관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의 터전으로서의 경관을 로컬 거주민들 혹은 로컬의 소속 집단에게 어떻게 의미 있게 창조하는가를 고찰한다.

로웬탈(Lowenthal, 1985)은 인간 이해에 있어 경관 미학의 잠재적 기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관은 개인과 사회가 자신들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환경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는 창을 제공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그는 “경관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그리고 물질적 환경을 형성하는 방식에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감각으로서 경관 지각(the perception of ‘landscape’ as sensation)과 그러한 감각을 형성하는 객체의 관계적 측면에서 경관을 연구한다. 그의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속에 놓여있는 매력적인 미지의 세계(terrae incognitae)’에 관한 것이다. 또한 외부 세계와 인간의 마음 사이에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스케인(Schein, 1997)에 따르면, 경관은 일상적 삶의 필연적 요건이며, 경관의 현존(landscape’s presence)은 여러 종류의 활동, 즉 문화 활동, 상업 활동, 취미 활동 등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경관은 내적 속성이 아닌 그것을 둘러싼 일상적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변화한다. 또한 잉골드(Ingold, 2000)는 “경관은 주변 환경을 재현하거나 상징화시키는 문화적 이미지 혹은 시각적 방식이다”라는 관점을 거부하였다. 다시 말해 마음과 물질의 구분, 즉 의미와 실체(substance)의 구분에 기초한 내부와 외부 세계의 분리를 거부하였다. 거주지로서의 경관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경관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밝히는 현장으로서 물질적 경관을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적 인식론과 그를 토대로 구성되는 근대성이 구축한 중심화 경관과 탈중심

화 경관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개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경관의 이해와 관련한 목적론적 경향이 만들어낸 근대화/탈맥락화 경관과 그 정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탈근대적/맥락화 경관 이해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의 골간은 근대적 방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이성과 몸, 그리고 경관과 일상에 대한 관계적이고 과정적인 이해에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 논의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경관의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한 매개로서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권력과 경관⁸⁾

정치가 상상 혹은 허구가 아닌 구체적인 사람, 사물, 공간과 시간을 대상으로 실천된다면, 특정한 장소에 토대를 둔 경관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확실하다⁹⁾. 그러나 정치와 경관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일반적 진술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해 “정치는 다양한 형태의 경관들을 왜/어떻게 형성 혹은 파괴(혹은 배제)시키는가?” “정치는 형성 혹은 파괴시킨 경관과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치가 형성 혹은 파괴시킨 경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거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왜 보이는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국가 하에서 전개되는 정치와 경관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그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1) 국민국가는 권력 정치를 통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등을 수립·실천하기 위해 중심화되고 탈맥락화 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상징적 의미를 부가하고 활성화시킨다. 2) 국민국가가 생산하는 근대적 경관은 다양한 주체들(계층, 성, 민족, 장애인, 거주민 등)의 상이한 가치를 거의 무시 혹은 배제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경관의 의미, 상징성, 물리적 형상 자체에는 ‘국민’이라는 집단 정체성의 이면에 갈등적 혹은 모순적 성질들이 내포되어 있다. 3) 국민국가가

생산 혹은 파괴하는 경관은 수행성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치는 다양한 유형의 경관, 기념물, 공원, 도로, 다리, 관광지, 상업단지, 도시 형태 등의 형성, 유지, 파괴(혹은 배제)에 관계되어 있다(노성두, 1997; 송도영, 2008; Rose-Redwood, 2008; Osborne, 1998; Rose, 2007; Prytherch, 2003; Schwartz, 2006). 경관은 자연을 변형시킨 것이며, 이러한 변형은 물질적, 이념적, 상징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관은 의미와 상징의 중심으로 작동하며, 특정 국가에 소속감과 영토적 정체성 형성에 능동적 역할을 한다(Nogue and Vicente, 2004, 113).

국가주의 이념은 경관의 상징을 포함한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징들은 특정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people)’ 혹은 ‘공동체(community)’의 일부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주의 신화는 집합적 정체성의 장소들을 창조하고, 이것은 한정된 지역, 상징이 부여된 특정한 공간으로 이해되며, 그리고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심으로 작동한다. ... 국가주의 이념이 부가된 상징적 경관, 즉 집합적 국가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는 내재적 혹은 불변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홉스보움과 랭거(Hobsbawm and Ranger, 1983)의 주장처럼 국가주의 이념 경관은 국가와 국가주의 운명과 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침(浮沈)한다(Nogue and Vicente, 2004, 117).

이와 관련하여 근대적 공간 인식과 사회적 공간의 생산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견해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추상적 혹은 사회적’ 공간은 “많은 것을 포괄하지만, 동시에 포괄된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위장(혹은 부정)한다”(1991, 310)고 주장하는, 그는 이를테면 “국가-관료적 질서가 자기 이미지를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독해가능성의 유리같이 투명한 환경 속으로 유연하게 넣음으로써, 자기실현과 동시에 자기은폐를 성취”하는데, 이를 위해 공간의 재현을 통해 지위, 규

범, 위계, 위치, 역할, 가치의 일정한 형태들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은폐되었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질서”(1991, 317)를 은연중에 드러내게/숨기게 된다.

이런 공간화의 원리는 보다 정교하게 수행되는 근대 국민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¹⁰⁾에서도 다양한 계획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를테면 영주로 대표되는 봉건 권력은 특정한 경관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농민 혹은 농노들을 통제·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아래와 같은 설명에서 일정한 정도로 드러난다.

가장 단순한 풍경(경관)에서도 정치적 선택의 결과를 읽을 수 있다. 경지정리·녹지계획·농업보조·시장통제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지의 규모와 배치, 작물선택, 심지어 농가의 위치까지 결정된다. 경작지·삼림·관개시설·방목지·목초지 등의 형태는 농업 정책에 따라 틀어진다. 경작지는 네모나거나 띠모양일 수 있고, 나란히 있거나 교차하는 등 갖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영주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개간 사업은 규칙적인 형태를 띠지만, 관리의 지도 없이 농민들끼리 행하는 개간은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노성두, 1997, 26~27).

이러한 위계질서와 관계 속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상이한 힘들 간의 ‘역동적 관계성’을 나타내며, 그 관계가 불균형적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다(Rose, 2002, 394).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로즈는 실천적 관점에서 저항이론의 발전 필요성을 논의한다. 저항에 관한 연구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해괴모니 공간과 이와 관련된 지배관계를 전유하거나, 반발하거나, 전복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사회 공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천들을 기술함으로써, 저항 연구는 ‘안정적인’ 공간의 재현(생산)을 변화시키는 상이한 방법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항적 실천(resistant practice)’을 인식하고 범주화시키는 이론들을 발전시킨다. 그의 저항이론은 “사회적 범주는 결코 안정적이거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권력, 주체성, 수행성

나, 규범적이거나, 고착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적 범주들은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구체적인 사물 현상들을 고정적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생성적으로 보는 지점에서, 우리는 장소의 상상력이 정치적이고 공간적인 실체들을 생산하는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Bialasiewicz, 2007). 담론은 일련의 재현들과 실천들을 의미하며, 구현되는 재현-실천들을 통해 의미가 다시 생성되고,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수립된다. 또한 이런 관계와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고 수용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언어이다”라고 주장하는 언어적 관념론(linguistic idealism)에 의존해서는 정치적 혹은 윤리적 입장을 택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담론에 대한 관심은 인식의 대상으로서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물질성의 중요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물질문화(토기, 무기, 의례적 건축물 등)의 생산 내막에는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과 개개인들이 서로 대립적인 이익, 즉 권력(power)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규범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규범을 형성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으로 파악한다”(추연식, 1998, 96).

담론적 실천들(discursive practices)을 제외하고는 비언어적이고 담론을 초월하는 현상들을 이해할 방법은 없다.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모두가 포함된 담론의 이해는 “담론이 실(수)행적임”(추연식, 1998)을 의미한다. 수행은 담론이 말하는 객체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국가는 이민법, 군사배치와 전략, 규범적 사회행위에 대한 문화적 논쟁, 정치적 발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담론적 실천들을 통해서 실질적 존립이 가능하게 된다. 담론을 수행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탈피하여 물질성(materiality)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물질문화의 진정한 성격은 현재와 과거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능동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체계라는 것이다.

4. 주체성과 경관¹¹⁾

주체성은 어떤 주체가 물질세계 속에서 행하는 활동, 물질세계에 대한 주체의 느낌, 물질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주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주체성이 세계 속에 육체적 참여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작업의 중심 모티브이며, 그들의 비재현이론(nonrepresentation theory)에서 반복되고 있다. 기억과 같은 인지는 세계 속에서 육체적인 활동을 통한 감각적 느낌을 대신할 수 없다. 주체성은 주체가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림에 따라 가능하게 된다(Rose, 2006, 546).

다양한 주체, 즉 개인, 가족, 기업, 정부 등은 각자의 의도에 따라 상이한 경관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며, 이것은 상이한 주체들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근대성, 제국주의, 자본주의 사상에 토대를 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 시대 로컬 거주민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형성·유지되어온 다양한 경관은 특정 주체들, 특히 정부, 기업, 지배 계층 등에 의해 동질적인 혹은 탈맥락화 경관으로 대체되고, 그 자체는 남아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파괴 혹은 소외되었다.

어떤 로컬의 전통 경관의 변화 혹은 파괴는 그 로컬인의 주체성을 변형 혹은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저항 혹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경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체의 의식 변화는 현재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각형의 콘크리트 박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도시의 아파트들, 도심 상업지역의 휘황찬란한 간판들, 농촌 마을 주변의 농지에 세워진 몇 동의 아파트,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된 거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재개발 사업에 의한 고층아파트 등 수없이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러한 동질적이거나 탈맥락화 경관이 우리의 삶과 의식, 나아가 자연환경에, 각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로컬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 부합된 경관, 특징적이며 맥락화 경관의 파괴와 이와 관

런하여 형성된 근대적 주체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주체성의 수립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주체성과 경관' 논의의 핵심은 "근대 주체와 주체성 그리고 물질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관이 어떻게 상호 관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주체와 주체성은 탈중심화 혹은 맥락화 경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이다.

경관과 주체 혹은 주체화의 관계성을 다룬 연구는 김상률(2004), 김종일(2006), 김홍중(2007), 와일라이(Wylie, 2005, 2006), 듀스베리(Dewsbury, 2007), 후크(Hook, 2005), 레포스카이(Lepawsky, 2005) 등이 있다. 주체와 경관의 관계성은 주로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에 의한 존재와 현상 관련 철학사상, 행위-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데리다, 들뢰즈 등의 후기구조주의 등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있다(김종일, 2006; 듀스베리, 2007).

김종일은 "경관이 개인 혹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경관과 정체성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개인은 특정한 경관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형성(의미화)된 경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거리를 경관의 일상적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경관에 대한 일상적 경험과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미지는 개인이 스스로를 주체화하거나 실존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경관의 이미지를 통해 얻게 되는 향수나 상상은 현상학적 측면에서 끊임 없이 개인의 존재감과 존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김종일, 2006, 139).

집단의 정체성¹²⁾의 경우, 그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관에 대해 같거나 혹은 비슷한 해석과 이미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집단 고유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어느 한 집단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특정한 경관의 해석과 이미지를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김종일, 2006, 139). 이를테면 어느 공동체의 정신적 경관으로서 정체성(들)은 물리적 경관과 상호작용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공간을 변화시키면서 독특한 시간성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한 인식요소를 영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인식풍경(epistemoscope)과 이를 통한 주체의 성찰성 연구(김홍중, 2007)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인식행위는 하나의 체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의 전(前) 개념적 매체가 바로 이미지 혹은 그림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조선 지식인들의 관념세계와 그들이 사용한 개념 혹은 논리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그러한 세계 관념을 표현한 산수화를 감상할 때, 보다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김홍중, 2007)할 수 있다.

이미지는 사유에 지배되는 실체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유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혹은 더 나아가 창백하고 건조한 사유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구체성과 감각성을 복원시키는 사유의 구원자로 등장한다. ... 풍경의 사유는 요컨대 지식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 무의식은 개념의 체계가 아닌 하나의 드라마이며, 이야기이며, 삶이며, 상황이다. 우리는 이론, 담론, 지식에 내포된 풍경의 무대화(mise-en-scene)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시대의 드라마, 이야기, 삶이 얼굴처럼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김홍중, 2007, 211).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 다시 읽기'에서, 미시시피 강은 미국 소설가 트웨인(Mark Twain)의 문학에서 단순한 사건의 무대로 물리적 환경만을 제공하지 않는다(김상률, 2004). 미시시피 강은 새로운 주체의 생산자, 적극적 의지의 행위자로서 인물의 성격,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 즉 사건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문학에서 미시시피 강은 미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서부(the West)라는 추상적 관념과 상상(frontierism)을 자극했으며, 구체적 장소로서 자유와 해방의 탈출구로 재현되어 왔다. 작품 속에서, 헉(Huck)과 짐(Jim)은 긴 뗏목 여행(raffing)을 통하여 근대적이고 유럽적인 유산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권력, 주체성, 수행성

을 구현한 동부의 위선 세계를 만나고 벗어나기를, 즉 경험과 탈출의 반복을 통해 문명과 자연의 경계 지대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성숙을 경험한다.

미시시피 강은 역류와 범람을 통해 차이와 사건의 철학을 위해 새로운 공간이 되어 줌으로써 독자의 의식 속에서 근대성을 반성케 하고 극복하게 한다. 미시시피 강은 다수자들의 억압적인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에 영합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유평적 주체를 생산한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의 흐름은 부유하는 기표 뗏목을 통해서 주인공들로 하여금 고정된 동일성(본질)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혁과 집과 같은 소수자들의 탈주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김상률, 2004, 6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와일라이(Wylie, 2005)는 해안가의 하루 산책을 통해 자아와 경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색한다. 그는 자연 상태이며, 인적이 드물고 험한 길을 산책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자아와 경관 사이의 친근감과 이질감(혹은 거리감)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해안 산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경관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자아를 고찰하였다. 해안가를 산책하는 동안에 자신의 자아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숲속, 절벽, 바닷가, 시각적인 문화유산을 보면서 산책하는 행동 각각은 분리된 인식과 묘사를 요구하였다. 이 연구는 해안을 따라 하루의 산책 동안에 일어나는 자아와 경관의 세밀함과 결부된 톤(tone), 텍스트, 물리적 지형에 주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미리 주어진 규범적 분류로서의 산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즉 일반적이고 순수한 물리적 이동으로서의 표준적 산책(의 진리)이란 없고, 산책자들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산책들을 한다. 산책하는 주체와 상호작용하는 경관은 산책이라는 구체적 과정을 통해 맥락화 되고, 주체는 경관과 상호작용하면서 매번 변화하는 새로운 경관을 체험한다. 따라서 주체는 맥락화 경관을 통해서 변화된 주체성을 얻는다.

5. 수행성¹³⁾과 경관

수행성 측면에서 경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의 경관 해석과 관계되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비판적 성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경관 이해에 있어 경관과 주체를 분리하는 문제, 2) 경관 재현에 있어 상호 영향의 관계와 과정에 대한 배제의 문제, 3) 경관을 만드는 주체와 관련한 근대적 가정의 문제 등이다. 이런 비판적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판점은 경관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부터 분리시켜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비판은 주체의 관점에서만 경관을 해석하는 관념론과 주체와는 무관하게 물질 자체로만 인식하는 물질론에 반대한다. 두 번째는 경관을 주체와 관계시켜 이해하는데 있어 주체의 경관 인식, 즉 경관 재현과 관련된 것이다. 즉 주체는 경관을 어떻게 재현할 것이며, 재현된 경관은 경관자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경관을 재현하는 주체는 어떠한 주체이며, 재현된 경관은 주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다른 경관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이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근대적 인식과 재현에 있어 “경관을 재현하는 주체는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닌 이성과 합리성, 즉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지니지 않은 생각만 하는 주체를 가정”하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경관에 대한 주체의 인식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언어, 기호, 도구 등)를 통한 뿐만 아니라, 그 매개체들을 생산하는 사회·문화·역사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매개체들을 통한 주체의 경관 인식이 대단히 유용적이며 불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는 경관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에 의해 해석된 경관을 인식한다. 세 번째 비판 지점은 주체가 인식 이전 단계로 신체기관(시각, 청각, 촉감, 후각)을 통해 경관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다양한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근대적 주체는 신체적 느낌과 인식과의 관계성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은 애초부터 근대적 주체라는 추상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체의 경관의 인식과 관련된 재현의 위기 혹은 비재현(nonrepresentation)¹⁴⁾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탈식민지주의론, 여성주의 등 다양한 이론과 접목되어 논의되고 있다. 수행성과 경관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은 델라 도라(Della Dora, 2008), 로즈(Rose, 2006), 로즈-레드우드(Rose-Redwood, 2008), 올위그(Olwig, 2008), 멜스(Mels, 2006), 크레프틀과 에데이(Krafft and Adey, 2008) 등이 있다.

경관과 관련된 수행성 연구는 몇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주체는 생동하는 몸의 실천을 통해서 경관과 역동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는다. 즉 생동하는 몸을 지닌 주체는 수행을 통해 경관을 느끼고, 생각하고, 창조한다. 또한 주체는 만들어진 물질적 경관 혹은 이미지적/언어적 경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주체는 다른 주체, 특히 국가, 기업, 지배계층이 생산한 동질화 혹은 탈맥락화 경관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문화를 주장하는 능동적 인간이다. 이러한 점들은 여성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버틀러(Butler)의 수행적 측면에서의 '성' 주체성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행성 관점에 따르면, 정체성이 사전에 주어진 주체의 속성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Kuus, 2007, 92). 버틀러에 의하면, 성 담론은 남자와 여자를 미리 주어진 주체로 표현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라는 규범적 범주는 성 담론의 영향 혹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수행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주체는 행위의 과정 속에서의 주체이다. 개인 혹은 국가 등의 주체들을 연구하는 것은 각각의 내적 일관성 혹은 이들 행위의 주관적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주체에 의해 생성되는 실천들을 분석하는 것이다(Kuus, 2007).

“모든 변화에는 창시자가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이미 신화이다: 그것은 작용하는 것과 작용을 분리시킨다. 만약 내가 “번개가 번쩍거린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번쩍거림을 한 번은 행동(Tätigkeit, activity)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주체(Subjekt, subject)로 설정한 것이다(Nietzsche, F. 1974, 101~102).

(니체에 따르면) 활동(Thun, deed), 작용(Wirken, effecting), 생성(Werden, becoming) 뒤에는 어떤 “존재(Sein, being)”도 없다. “활동하는 자(der Thäter, the doer)”는 활동에 덧붙여 단순히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활동(das Thun, the deed)이 모든 것이다(Nietzsche, F. 1968, 293).

또한 수행성은 경관 속의 존재(being-in-landscape)가 아닌 경관 속에서 혹은 통해서 일어나는 생성(becoming-in/through-landscape)을 강조한다. 즉 수행적 주체는 열려있고, 저항하고, 새로움을 창조한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암호들(codes) 혹은 상징들이 아닌 만남 혹은 접촉을 통해 진행되는 효과들의 생성에 관심을 갖는다(Thrift and Dewsbury, 2000, 415).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육체를 지닌 주체들의 공간 지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실체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술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사람들의 공간지각은 고정적으로 (공간 속성에 관한) 정보를 받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와 더불어 일어나는 실제와 가능태의 세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즉 공간적 지각은 기억과 상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육체가 실제와 가능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지고 기억된 것’과 ‘상상되거나 기대되는 것’과의 지속적인 타협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공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경험은 일반적으로 ‘지성과 인증(recognition)’ 그리고 ‘풍부한 가능성과 놀라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곳은 ‘정체성과 의미’가 존재하는 그리고 ‘장소와 탈장소’의 근본적 구분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Daskalaki et al., 2008, 60).

버틀러(Butler, 1992)에 의하면, 수행성은 사회적 구조와 개별 행위자의 관계를 체화된 방식으로 지각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에는 미리 주어진 정체성 가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agent)의 직접적 참여를 포함한다. 버틀러는 몸을 통해 위반성(transgressivity)과 규범성(normativity)을 끊임

없이 말하는 수행성 이론을 창안했다. 그녀는 각각의 작동뿐만 아니라 명령적 수행에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성'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강요된 규범의 반복성(the forced reiteration of norms)에도 관심을 가졌다.¹⁵⁾

로즈-레드우드(Rose-Redwood, 2008)는 뉴욕시에서 도로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 수행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1945년 9월 말에 뉴욕시 의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맨허튼 6번가(Manhattan's Sixth Avenue)'를 '아메리카스 거리(Avenue of the Americas)'로 이름을 고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45년 10월 20일에 새로운 거리 명명을 축하하기 위해 약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제를 열었다. 그 축제는 뉴욕 시장이 '아메리카스 거리'를 서반구의 평화와 연대에 봉사한다는 미국이 미주 대륙에서 품고 있었던 정치적·외교적 명분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 축제에서 범아메리카 통합의 상징으로 미주대륙 국가들의 국기를 단 22대의 차량들이 해군의 행렬 뒤를 따랐다.

'아메리카스 거리' 명명의 상징적 축제는 대중적 참여와 홍보를 통해 새로운 거리 이름의 대한 권위적 힘을 확보하기 위한 뉴욕시의 의도였다. 또한 뉴욕의 거리 이름을 바꾸는 축제는 초국적 관계들의 합법화의 일부분으로서, 로컬의 사건 이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의 재조정과 그 확인을 위한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776년 독립혁명 이후로 노골적으로 미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결정화한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주장하며 구대륙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대륙의 개입을 차단하여, 미주 대륙 전역을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통제력 하에 통합하기 위해 미주 국가들의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이의 공식적인 공표가 바로 먼로(James Monroe)대통령이 1923년 12월2일 연두교서에서 천명한 먼로주의(Monroe Doctrine)¹⁶⁾였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국가의 외교적 명분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뉴욕 주민들은 법적 권위에 의한 탈맥락화 된 거리명보다 로컬의 전통적으로 맥락화 되어 있는 거리 이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

다. 이는 수행적 저항의 기초로 일상적 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거리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법적 거리 명명의 합법성에 도전하였다.

6번가 이름 고치기를 둘러싼 수행적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적 기구가 주민들에게 '아메리카스 거리'라는 도로 명명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온 모든 주체들을 수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특권화된 주체의 포섭 전략을 단순히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의 관계적-과정적인 현상으로서 여기서 예시된 도로 명명의 수행과 그 통용의 수행은 경쟁적인(혹은 갈등적인) 이해관계와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발언들이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정치적 공간을 형성시키는 실천의 과정을 보여준다.

도로 명명이 상상된 지정학적 의미를 도시의 지리적 거리경관에 투영하기 위한 전략, 즉 로컬 경관을 초국적 관계의 법규를 상상하고 정당화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정학적 목적으로 거리 이름을 바꾸는 정책결정과 수행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경합과 갈등의 산물인 한편,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장소성이 부착된 로컬 전통을 유지하려는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로컬 커뮤니티 또한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집단들은 로컬을 상이하게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집단들은 로컬의 상황과 초국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는 집단들도 있다.

뉴욕시가 수행한 도로 명명에 관한 연구는, 그 정당성에 대한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 이전에, 정책이나 비전 등을 매개하여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 대한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른바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의 세계 지역들의 지정학적 위상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그런 변화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로컬에 대한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는 국가 혹은 초국적 자본의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정교하게 수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수행성과 경관에 대한 연구는 초국적-국가적-로컬적으로 다양한 수행적 주체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저항의 목소리들, 유형들, 의미들 따위를 읽어낼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6. 나오는 말

근대 국가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보장하는 효율적 사회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심화 경관이 라는 관념적-물질적 가치를 표준으로 로컬을 (재)구성해왔고, 이 중심화 경관은 로컬인의 감성, 인식,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중심화 경관은 근대적 권력 정치의 중심으로서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화 경관은 성적·계급적·인종적·지역적·문화적 약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심화 경관은 로컬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과 부합하지 못하고, 로컬경관을 탈맥락화하고, 로컬의 일상과 장소성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에 반해 탈중심화 경관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미리 규정되지 않는다. 이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생동하는 몸으로서 주체가 경관과 상호작용하면서 경관은 맥락화된다. 마치 젠더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듯이, 성적정체성은 젠더의 수행성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다.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몸으로서 주체는 로컬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서 중심화 경관과 '가능태'로서 탈중심화 경관과 지속적으로 타협한다. 더 나아가서 탈중심화 경관에서 주체는 몸의 활동을 통해 위반성과 규범성을 체험하면서 변화한다. 또한 생성하는 주체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로컬을 특정한 경관으로 변화시킨다. 로컬에서 특정한 경관을 재현하는 주체는 주체의 수행성을 통해서 근대국가와 자본의 중심화 경관을 해체하고, 로컬의 탈중심화 경관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중심화 경관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항해서 물질적·행위적으로 저항하고, 더 나아가 주체의 수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탈중심화 경관은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항해서 로컬의 자립성, 자율성, 주체성을 재현할 가능성의 정신적 근거이자 물리적 현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행성 개념을 통해서 근대적 경관 혹은 탈맥락화 경관(중심화 경관)을 비판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중심화 경관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권력, 주

체성, 수행성이 (탈)중심화 경관과 왜/어떻게 필연적 혹은 우연적으로 결합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향후 연구들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심화된다면, (탈)중심화 경관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탈)중심화 경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로 구성되는 로컬(인)을 소외시키지 않는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실천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 1) 본 연구에서 로컬은 지역과 지방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특히 로컬의 용어는 정치·사회·문화·경제의 계층적·수평적 관계의 측면에 주목한다.
- 2)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박사논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구와 고령에 머무르고 있었다.
- 3) 네 가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로컬의 경관을 관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컬과 경관을 보다 뚜렷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경관과 이를 생산·소비하는 주체들뿐만 아니라 좀더 복잡한 요인들, 로컬인의 특성, 로컬의 사회·문화·역사, 로컬과 로컬을 초월한 힘들의 결합 관계 등을 중심화 혹은 탈중심화 경관과 관계시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대답이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지만 우선 경관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권력관계, 주체성, 수행성을 논의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경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4) 권력과 경관의 관계는 국가(혹은 정부), 이익집단, 자본, 지식, 관습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치권력에 한정시켜 논의를 전개시킨다.
- 5) 경관은 지리학의 중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연구의 역사가 깊고, 시각 혹은 이론과 방법 또한 대단히 복잡하다. 이 장에서는 경관 연구에 관한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을 고찰하지 않고 영미권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경관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최근 문화역사지리 학회지(2009년, 21권 1호)는 '경관 연구의 다양성: 지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탐색'이란 주제로 경관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담고 있다. 윤흥기(2009)는 문화지리학의 창을 통해 영미권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경관 관심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류재현(2009)은 한국 문화경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수립하려고 한다.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 권력, 주체성, 수행성

- 6)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심 개념인 권력, 주체성, 수행성은 경관 연구의 최근의 흐름, 즉 경관의 존재와 인식을 동시에 보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 7) 이에 대한 의문은 심리학, 특히 인지와 신경심리학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느낌 혹은 감정도 인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경관의 개념화 혹은 재현은 이 점에 대한 고려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몸과 마음의 분리와 이와 관련지어 이성과 감성의 분리시키고, 이성의 영역에서 감성을 추방 혹은 주변화시킨 데 있다.
- 8) 여기서 권력과 경관은 국민국가 하에서 정부, 특히 중앙정부가 행하는 정치권력과 경관의 관계성을 논의한다. 국민국가 하에서 정치권력을 다루지만 때때로 범위를 넘어선 지점에서 권력을 논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국민국가의 정치권력을 정치로 표현한다.
- 9) 정치권력이 경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 이념 혹은 제도를 경관에 투영시켜 정치경관(political landscape)을 창조한다는 의미이고, 그 반대로 생성된 정치경관은 상징성, 물질성 등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이념 혹은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10) 동양의 전통사회에서도 정치는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공간을 구획화하고, 삶의 터전을 배치하였다. 격자형 도시는 막강한 정부의 상징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특히 그렇다. 당나라의 장안이 가장 완벽한 격자형 도시로 꼽히며, 이는 일본으로 전해져서 8세기 초엽 헤이조쿄(지금의 나라)의 계획지침이 되었다. 1세기경 중국의 행정수도는 완전히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곳은 정치적 규제가 의해 정해진 주거지였다. 도시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요구에 따라왔다. 직교형 계획은 불변의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공간구조를 고착화한다. 도시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궁궐 자리를 잡고, 행정·종교 그리고 계급에 따라 주택을 배치한다. 상업활동은 그 다음에 고려되며, 정치적으로 정해진 격자 안에서 엄격하게 편성된다. 이것이 쑤저우를 환상적 도시로 만들었다(양운재, 2009, 208).
- 11) 경관은 의식적 행위자에 의해서 특정 형태로 형성된 객체 혹은 물체이며, 역으로 형성된 객체/물체인 경관은 주체 마음의 내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몸과 마음을 지닌 주체, 사회·문화, 물질성(materiality)을 띤 경관은 상호작용하지만 현실적인 존재의 관점에서는 구분되는 실체들(realities)이다.
- 12) 조지 허버트 미드에 의하면, 자아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험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제도의 내면화는 일반화된 타자가 자아의 일부분이 되는 과정이다. 일반화된 타자가 행위자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미드의 이론에 주체는 항상 자신 속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환경의 규범과는 일치할 수 없는 요구의 충돌을 감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그 '반응'은 이미 시작된 행위를 끝마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한다.

- 13) 언어에 있어서 '수행적(performative)'이란 용어는 오스틴(Austin, 1962)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수행성(performativity)은 여성주의 철학자인 버틀러(J. Butler)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14) 비재현 이론은 담론과 텍스트 중심의 재현으로부터 육체적 실천을 통한 생생한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비평은 재현의 시각적 텍스트까지도 실천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재현보다 몸의 실천에 우위를 두는 이론들이 아니라 그들을(재현과 몸의 실천)을 통합하려는 전략들을 제공하는 개념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Nash, 2000). 이러한 개념들은 공간적 재현의 수행성을 체화된 실천으로 간주하고 있다.
- 15) 임옥희는 성적 정체성은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말한다. "푸코에 의하면 섹스는 규율적인 관행을 통해 일관된 성적 정체성으로 생산된다. 그러므로 섹스/젠더가 일치하지 않는 섹슈얼리티는 배제된다. 그 결과 욕망의 이성애화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섹스는 성적 경험, 행동, 욕망의 원인으로 설정된다. 상품의 하나인 화폐가 모든 상품의 가치를 매겨주는 기준이 되는 것과 흡사하게, 젠더의 효과로 구성된 섹스가 오히려 성적 정체성을 규율하는 원인이 되어버린다. 푸코에 따르면 성차의 범주화에 선행하는 섹스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섹슈얼리티 양식에 의해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 그 결과 섹스는 젠더를 규율하는 원인이자 자연적인 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임옥희, 2006, 43~44)
- 16) 먼로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의 미국 지도자들이 1817년 자유 흑인과 해방 노예들에게 선교사 자격을 부여하여 아프리카로 이주시켜 식민지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 미국식민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를 '민간단체'라는 형식으로 설립한다. 1820년에 시도되어 1822년 원주민 대량학살과 함께 수립된 미국 최초의 식민지 라이베리아(Liberia)는 그 형식에 걸맞지 않게 미국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탄생한다. 그 나라의 수도는 먼로의 이름을 따서, 먼로비아(Monrobia)로 정했으며, 이듬해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선언하는 일종의 정치적 눈가림을 위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배운기, 2006, 110) 있다.

문헌

- 김인, 1997,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성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110-145.
 김홍중, 2007,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 41(3), 186-214.

- 김상률, 2004,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 다시 읽기, 미국학 논집, 36(2), 50-73.
- 노성두 옮김, 1997, 정치적 풍경, 일빛(Warnke, M., 1992, *Politische Landschaft-Zur Kunstgeschichte der Natur*, Carl Hanser Verlag).
- 류제현, 2009, 한국의 문화 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1), 105-116.
- 배윤기, 2006, 윌리엄 웰스 브라운의 『클로텔』: 미국의 패러독스, 영미문화, 6(2), 99-122.
- 송도영, 2008, 일상 공간행위와 재현을 통한 도시 경관의 문화정치: 파리 20구 벨빌 지역 이주민 커뮤니티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1), 151-184.
- 양윤재 옮김, 2009,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공간사(Kostof, S., 1991, *The City Shaped: Urban Pattern and Meanings Through History*, Thames & Hudson Ltd, London).
- 윤홍기, 2009, 영어권에서 문화지리학의 발전과 연구동향, 문화역사지리, 21(1), 13-30.
- 임옥희, 2006,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 추연식, 1998,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 최근 연구방법론과 이론사조, 학연문화사
- Austin, J.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ialasiewicz, L. 2007, Geographies of Production and the Contexts of Politics: Dis-location and New Ecologies of Fear in the Veneto citta diffus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1), 41-67.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Cosgrove, D. and Daniels, S.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skalaki, M. et al., 2008, The Parkour Organization: Inhabitation of Corporate Spaces, *Culture and Organization*, 14(1), 49-64.
- Dewsbury, J.D. 2007, Unthinking Subjects: Alain Badiou and the Event of Thought in Thinking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 443-459.
- della Dora, V. 2008, Mountains and Memory: Embodied Visions of Ancient Peaks in the Nineteenth-Century Aegea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 217-232.
- Hook, D. 2005, Monumental Space and the Uncanny, *Geoforum*, 36, 688-704.
-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i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 Kuus, M. 2007, Ubiquitous Identities and Elusive Subjects: Puzzles from Central Europ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 90-101.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Donal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 Lepawsky, J. 2005, Stories of Space and Subjectivity in Planning the Multimedia Super Corridor, *Geoforum*, 36, 705-719.
- Lowenthal, D. 1985,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ls, T. 2006, The Low Countries' Connection: Landscape and the Struggle Over Representation Around 160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2(4), 712-730.
- Nietzsche, F. 1968, *Zur Genealogie der Moral (1886~1887)*, Werke VI-2, Kritische Gesamtausgabe,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Hg.),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Nietzsche, F. 1974, *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5 bis Herbst 1887*, Werke VIII-1, Kritische Gesamtausgabe,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Hg.),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Nogue, J. and Vicente, J. 2004, Landscape and National Identity in Catalonia, *Political Geography*, 23, 113-132.
- Olwig, K.R. 2003, Landscape: The Lowenthal Leg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3(4), 871-881.
- Olwig, K.R. 2008, Has 'Geography' Always Been Modern?: Choros, (non)representation, Performance, and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 1843-1861.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권력, 주체성, 수행성

- Osborne, B.S. 1998, Constructing Landscapes of Power: the George Etienne Cartier Monument, Montreal,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4 (4), 431-458.
- Prytherch, D.L. 2003, Urban Planning and a Europe Transformed: the Landscape Politics of Scale in Valencia, *Cities*, 20(6), 421-428.
- Rose, M. 2002, The Seductions of Resistance: Power, Politics, and a Performative Style of System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 455-467.
- Rose, M. 2006, Gathering 'Dreams of Presence': a Project for the Cultural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 537-554.
- Rose, M. 2007, The Problem of Power and the Politics of Landscape: Stopping the Greater Cairo Ring Roa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 460-476.
- Rose-Redwood, R.S. 2008, Sixth Avenue is now a Memory: Regimes of Spatial Inscription and the Performative Limits of the Official City-Text, *Political Geography*, 27, 875-894.
- Schein, R.H. 1997, The Place of Landscape: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and an American Scen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4), 660-680.
- Schwartz, K. 2006, Master in Our Native Place: the Politics of Latvian National Parks on the Road from Communism to Europe, *Political Geography*, 25, 42-71.
- Thrift, N. and Dewsbury, J.D. 2000, Dead Geographies - and How to Make Them L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 411-432.
- Wylie, J. 2005, A Single Day's Walking: Narrating Self and Landscape on the South West Coast Pat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234-247.
- 교신: 박규택(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pkt11@pusan.ac.kr, 전화: 051-510-7430)
- Correspondence: Park, Kyu-taeg,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pkt11@pusan.ac.kr, phone: 051-510-7430)
- (접수: 2010.5.3, 수정: 2010.5.29, 채택: 2010.6.21)